니 말도 맞고,
자네 말도 맞네, 그려!
(부 록)

2011년 12월 31일

謳鵲閑談

책 머리에

2011 년 5 월
사회생활의 처녀지이자 무덤이었던,
조흥-신한은행 28 년(1983 년 4 월 ~ 2011 년 5 월) 궤적의 종지부를 찍고
생소한 남쪽나라, 포항을 향해 긴긴 방황의 길에 올랐다.

본래 역마살이 낀 팔자 탓인지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좌충우돌하며 살아 온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이 안 된다.
족하면 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형편에 맞추어 살면 그 뿐 아니겠는가?
욕심은 버릴수록 행복해지고, 선은 베풀수록 넉넉해지는 것이니
걱정할 대상도, 걱정할 이유도 없다.

다만 나로 인하여 비롯된 인연부스러기들이
고통 받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워
힘 닿는데 까지, 여건이 허락하는 때까지 월동준비를 해두고자 함인 게지

이제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어디론가 훌쩍 떠날 것이다.
다 쓰러져 가는 어느 토담 밑에서
가을 햇살을 덮고 쪼그려 앉아 있는 노구를 보면 반가이 인사나 주시게나!
벌레 먹어 볼품없어진 들풀을 보고 미친 사람처럼 헤 웃고 있는 주정뱅이를 보거들랑
그냥 쓴 막걸리 한잔만 사 주시게나!

이제 서서히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 두어야겠다.
아직도 해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녁 햇살은 그저 잠깐 뿐이다.

해 떨어지는 당진 왜목 마을의 황혼은 아름답다 못해 실로 장엄하다.
팔을 다 뻗어도 안지 못 할 만큼 커다란 불덩이를 보면
가슴이 절로 타오르고...

Angst Blute!

가장 처절한 절망의 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하게 피어 오른다는 전나무 꽃과도 같이
남은 시간을 알뜰하게 조리하리라

"이 절에는 첨 이신가?"
"네"
"그럼 차나 한잔 들고 가시게!"
"손님께서도 이 절에 처음이십니까?"
"아니요, 여러 번 째 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차나 한잔 들고 가세요!"
"어찌하여 처음 온 사람에게나 여러 번 온 사람에게나 똑 같이 말씀하십니까?
"너도, 차나 한잔 들거라!"

오늘도 조주를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
하릴없이 강을 건넌다.

2011.12.12
놀까치(謳鵲)

목 차

1. 가장 날카롭고도 부 드러운 '혀' 6
2. 2011 년 '311 일본 대지진 사태' 를 보면서 7
3. 신한을 떠나며! (직원들에게 띄운 e-Mail 메시지) 9
4.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11
5. 평생을 해도 모자라는 '소양공부' 12
6. 어른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은 요즘 아이들! 14
7. 편리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15
8. 스팩이 밥 멕여 주지는 않는다. 16
9. 알기 쉬운 '머피의 법칙 (Murphy's Law)' 17
10. 정동영스럽다. 18
11.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오래 고이면 썩는다. 18
12. 레알 장미단추 19
13. 2012 임진년 새해를 열며! 20
14. 유연성의 문제 22
15. 폭력보다 무서운 것 22
16. 용의 해에 다시 생각해 보는 운명론 23
17. 기도는 내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 25
18. 나사가 풀릴대로 풀린 대한민국호 25
19. 어허 다르고, 에헤 다른 소리 26
20. 불협화음 26
21. 모르쇠 증후군 27
22. 정글의 법칙 (Animal Instinct) 28
23. 사업성공의 Key 30
24. 구중부화(口中孵化) 31
25.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조강지처 32
26. 상구와 하구 33
27. 포항의 재래시장 '죽도시장' 34
28. 한 알의 보리가 익어 떡이 될 때까지 35
29. 고풀남의 행복론 37
30. 인생 총량불변의 법칙 40
31. 맹사성의 일화 41
32. 난세일수록 정도가 방법이다. 42
33. 대포이사 43

34. 혓바닥을 다스리는 태산대왕(좌마지옥 CEO) 43
35. 모든 걸 내려 놓으니 죽음도 물러나더라 45
36. 평화방송 황창연신부에게 듣는다. (17 번 감사기도론 주창자) 46
37. 복부 마사지만 열심히 한다고 살이 빠질까? 47
38. 뭐든 틈을 주면 파고들려 한다. 47
39. 한 쪽으로 쏠리는 사회 48
40. 4 대강에 물이드니 5 대강이 되었고나! 49
41. 푸어, 푸어, 마구 푸어! 50
42. 여옥의 '공치사가' 50
43. 富와 人間性 '청개구리의 법칙' 51
44. 가장 잔인한 복수 53
45. 비가 오니 날이 많이 포근하지요? 53
46. Broken Spade 54
47. 그래 난 소독하려고 술마신다. 55
48. 스스로를 좀먹는 녹과도 같은 습관 56
49. 우리 아이 공부 못하는 건 1분 11초 탓! 57
50. 점은 예언이라기 보다는 선택(Choice)이다. 57
51. 인간 과대포장 '성형' 58
52. 매워도 다시 한번! 59
53. 신뢰냐? 정의냐? 59
54. 해산에 부쳐! 60
55. 오늘은 3.14 파이(π) 데이 61
56. 공부가뭐이가 62
57. 가슴으로 말하라! 63
58. 까치가 우옵네다. 63
59. 어그부츠와 솔트 64
60. 느림의 미학 65

1. 가장 날카롭고도 부 드러운 '혀'

정치보다도
사기꾼보다도
더 무서운 자가 있으니
바로 언론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못난이 1 번 이다.
제 돈 내고 밥 먹는 게 정상이 아닌 사람
Golf Green Fee 는 누가 내는지도 모르는 사람
봉급이 없어도 사는 사람
시건방지기 짝이 없는 사람
나 위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안하무인인
시국에 영합하여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
이도 저도 아니면 강아지 똥구멍에 붙어 사는 사람
그들이 다름아닌 언론계 종사자들이다.

알면서도 떼거지를 부리는 엉터리다.

은행더러
돈은 안 갚아도 지랄하고
일찍 갚아도 지랄한다고 앞장 서 성토한다.

물론, 비판을 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알면서도 무조건 까는 것은 지성이 아니다.
집들이를 한다고 열심히 음식준비를 했는데
아 얘 오지 않거나
왔다가 얼굴만 내밀고 바로 가면
준비한 음식은 어쩌지?
소는 누가 키우냐고?
1 년 쓰겠다고 하여
연 4%짜리 정기예금을 받아 돈을 준비해서 빌려 줬는데
1 주일 만에 갚으면 그 비용은 누가 대 주는가?
연체 수수료, 조기상환 수수료 같은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기회비용인 것이다.

수수료 부과의 경중을 가지고 나무라면 그건 옳다.
하지만 기본적인 정책을 가지고 싸잡아 비난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
우리나라 언론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본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지적하는 것이
참 언론의 자세다.

얼토당도 않은 점술가의 혀를 빌어 미래를 예단하는
비굴함이 언론의 할 일은 아니다.
대선, 총선 등 선거철만 되면 무당의 입을 빌어
후보들의 사주팔자를 거론하고, 은근히 지지와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
태도를 보면 구역질이 난다.

2011.10.19

2. 2011 년 '311 일본 대지진 사태' 를 보면서

후쿠시마 원전 1 호기 외격납건물 지붕 및 건물상단 폭발붕괴 사고도
불행 중 다행으로 2011. 3.13 새벽 현재 점차 안정을 되찾고 수습과정을 밟는 양상이다.
원자로의 요체인 '철제 핵연료봉 격납시설' 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진 규모와 피해는 실로 엄청났으나
그 대응력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질서, 일사불란한 정부의 대응,
특히 시나리오 별 원전사고 대응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고
반성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다.

우리의 천안함, 연평사건 등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며,
일단은 책임이니 이해관계니 하는 것들은 다 집어 치고 국민의 안전과 만일의
대형사고에 대응하여
실시간 사건이 진행되는 대로 그 모습과 과정을 있는 대로 보여주고
그때 그때마다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원전 1 호기가 폭발되었고 그 결과 원자로 격납시설 지붕과 벽이 붕괴되었다'
'방사능이 내부 1,000 배 외부 20 배로 증가하였다'
'연료 봉이 녹을 때 누출되는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되었다'
'방사능 피난지역을 제 2 원전 반경 10km 이내에서 제 1 원전 반경 20km 으로 확대한다'

그리곤 새벽 5 시 현재
우려했던 사태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진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질서정연하게 따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모든 가능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피해지역 주민들도 울고 짜고 아우성치는 등의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엄청난 피해를 당한 사람들 치고는 너무나도 담담한 표정들이다.
정부관료들도 주민들에게 다가가 표 구걸용 동정이나 생쑈 같은 것은 아 얘 할 생각조차 않는다.

연평도 포격사태의 모습이 자동 오버랩 된다.
정치인들은 어울리지도 않는 군복을 갈아입고 현장방문에 열을 올린다.
오버의 극치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보온물통을 손에 들고 포탄이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한편 주민들도 제 몫 챙기기에 급급하다.
'임시 수용시설엔 지겨워서 더 이상 못살겠다. 전쟁 위험 지역에서 어찌 더 살란 말인가?'
'아파트 한 채씩 주고 이주대책을 내 놓아라.'
이 참에 한몫 챙기겠다는 심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모습이 어디 일부 연평 주민들에게만 해당되겠는가?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두의 평소 모습인 것을...

아이들은 정부정책을 사사건건 공격하고, 비아냥거린다.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다.
최고 통수권자에겐 이상한 동물 코스튬까지 입힌다.
정부는 생색내기 아니면 변명 일변도의 언론플레이에 여념이 없다.
해병대전우회니 호남향우회니 고대교우회니 하는 3 대 강자가 키워드로 부상한다.
강부자와 고소영이 뜬다.

정부는 미래발전적 비전(Vision) 제시보다는 선심행정에 눈이 어둡고
국민들은 상대를 배려하는 건전한 판단이나 양보는 뒷전이고 떼만 쓰려 안달이다.
국민과 정부, 정부와 국민간 신뢰관계가 깨진 때문이요,
정당한 법과 질서의 집행 매뉴얼이 파기되거나 방치된 직무유기 시절이
장기간 지속됐기 때문이다.
백년대계를 향한 큰 그림의 교육정책이 사망신고를 낸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을 사실대로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다.

자존심이 상할 일도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환골탈태의 자세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살 길이다.
이것은 개인이나 조직이나 다 같이 적용되는 룰이다.

일본은 자주, 그들이 생각해도 참 지겨울 정도로 사고를 많이 당하는 나라다.
그런데도 어디 한번 불평을 하던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깨어지면 다시 고치는 과정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반복한다.
이것이 바보 같아 보이지만 그들이 무서워지는 첫째 이유요,
우리가 영원히 경계하고 배워야 할 그들만의 강점이다.

물론 우리의 장점도 무수히 많다.
하지만 약점도 있는 법이니, 알았으면 고쳐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처럼 구차한 변명만 일삼지 말고...

※ 일본정부 및 일본전기의 사실은폐 의혹이 있고
사고 규모는 후에 훨씬 더 큰 것으로 판명이 났으나
본 고는 당시의 보도를 근거로 하였으며, 사고를 수습해가는 과정은
일본 특유의 질서와 절제가 뛰어났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11. 3. 13

3. 신한을 떠나며! (직원들에게 띄운 e-Mail 메시지)

주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맘 편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옵고

마땅히 바꿔야 할 것들은
주저 없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만 28년이란 긴 세월을 함께해 온 신한의 품 안을 떠나며
Reinhold Niebuhr 의 'Prayer(기도)' 를 여러분께 바칩니다.

저는 2011년 4월 30일자로 정든 은행을 떠나
5월부터는 은행이 마련해 주신 '포항테크노밸리'CFO 로 전직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오직 이 말 한마디뿐.
돌이켜 보면, 준 것은 없고 그저 받은 것만 많아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란, 하나를 더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모두를 다 주고도 더 줄 것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라 했는데
과연 십 분지 일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 본 적이 있는가? 반성해 봅니다.

혹여, 시건방졌다거나 제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용서바랍니다.
진심이 그게 아니었다고 변명하기보다는 그냥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회자정리라 했습니다.
만났으면 곧 떠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이 말은
떠나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겠지요?
포항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다시 반갑게 만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비록 몸은 떠나도 마음만은 두고 가겠습니다.

이제 한 명의 신한 인이 아니라 움직이며 작은 신한 인을 하나씩 둘씩 새끼 쳐 나가는
극성스런 전도사 역할로 그 동안 받은 은혜를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군 열을 만들기에 앞서 적 한 명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진정 얻고자 한다면 버리라고 가르쳐 온 신한의 봉사정신도 실천하겠습니다.
뭔가 손에 잡고 있던 물건을 놓지 않으면,
추위에 얼어붙은 차가운 손이 다가오더라도 그 손을 잡아 줄 수가 없으니
어찌 비우고, 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쪼록 신한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길
아울러 신한가족 여러분들의 개개 가정에도 큰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4. 27
전 북부영업본부장 조현태 배상

4.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一切唯心造라!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짓는 것이라고 하여
당대 동아시아 최고의 정신적 지주로 통했던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감로주처럼 달콤하더니
날이 밝아 물을 담고 있는 해골을 보니
온 속이 다 뒤집어지는구나!

원효는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의 마음(眞如門)' 과
'요동치는 마음(生滅門)'으로 나누었다.
요동치는 마음이란 본래 고요했던 마음이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흔들리고 흐트러지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마음은 과거의 기억 속에 잠재해 있던
어떤 욕구나 결여 감을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요동을 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수도를 통하여 욕망과 집착의 기원인 기억의식(알라야식)을 끊고
고요한 물과 같은 경지, 즉 '있는 그대로의 마음'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 이란
단지, 내면에서 요동치는 마음이 애시당초 없거나 가라앉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가해오는 충격으로 일렁이는 마음의 움직임까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내부에서 끓어 오르던 일체의 희로애락 감정기복과 욕구, 불만 등을 잠재워
고요한 상태가 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는데,

해탈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져 모든 우주만물의 움직임,
즉 생노병사 고를 끌어안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스스로의 마음 상태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자재로 Control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신이라도 외부에서 오는 움직임조차 막을 길은 없듯이
고요한 마음도 외부충격을 받으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명을 하게 된다.
산들바람이 불면 부드럽게, 폭풍이 몰아치면 거칠게 요동친다.

이것이 불교에서 이루고자 하는 깨달음의 길인 것이다.
고요한 '있는 그대로의 마음 상태' 가 되어
요동치는 중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라는 가르침이 곧 그것이다.

고요한 본연의 마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안에서 요동치는 마음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끊고, 비우고,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뭔가 손에 잡고 있던 물건을 놓지 않으면,
추위에 얼어붙은 차가운 손이 다가오더라도 그 손을 잡아 줄 수가 없으니
어찌 비우고, 버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5. 평생을 해도 모자라는 '소양공부'

말 실수도 습관이자
공부가 부족하다는 자백이니
조심해야 한다.

더구나 비즈니스나 학술토론 같은 자리에선
무식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
아니 조심 가지고는 안되고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우리 회사 CEO 영감도 그 중 하나다.
맘은 부처요, 얼굴도 나이에 비해 엄청 동안이며, 대인관계도 짱인데
구청장 출신에다 정당 선대본부장 타이틀까지 거치신 분이 아는 게 너무 없다.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다가 대상 산단에서 제척된 곳으로 '주상절리' 지형이 있는데,
언급할 때마다 '주상전립선' 이라고 하니 디집어 질 일이다.
Turn-Key Base 계약,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Moody's 도 모르는 것은 물론,
관심이 있으면 그 동안 사전이라도 뒤져봤을 법한데 한 두 번도 아니고 지형설명이 있을 때마다 '주상전립선' 운운하니 한심한 일이 아닌가?

말이 나온 김에 우스개 소리 하나 더 하면,

말 실수가 잦은 어르신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맛 있구먼!" 해야 할 것을 "맛 갔구먼!" 한단다.
그 영감이 드디어 임자를 만나고 말았다.
조카사위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교제 한지는 얼마나 됐나?" 해야 할 것을
"교배한지는 얼마나 되었나?" 해서
좌중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한다.

ㅎㅎㅎ
"자기야, 자기는 절대음각을 가졌어?"
"동초화초가 몸에 글케 좋다며?"

< 제주도 주상절리(柱狀節理, pillar-shaped joint) >

2011. 12. 8

6. 어른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은 요즘 아이들!

요즘 아이들이 철 없다고
한숨을 푹푹 쉬시는 어른들이 많은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 어른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다.
이젠 대가족제도가 성행하던 과거는 지났다.
어른공경, 다시 말해서 효가 최고의 가치였던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도 큰 것이 필요 없게 되었다.
오래 살다 보니 어른들이 귀하게 대접받던 시대도 지나갔다.
너무 오래 살아 천덕꾸러기가 된 것이다.

이제 아이들은 더 이상 어른들의 보험이 아니다.
아니 소공자 시대엔 그럴 능력도 없다.
한 쌍의 젊은 부부가 부담하는 부하 량을 측정해보자.
옛날에는 자녀 6, 부모 2 이면, 1 인당 1/3 부담에 기간도 길어 봤자 10 년!
지금은? 자녀 1 부모 2 자식 1 애완견 1 이니, 1 인당 4 라는 부담이 30 년간 지속!
게다가 결혼하면 장인 장모까지 부담해야 하니 허리가 휜다.
어른은 이제 짐이 되고 공경의 대상에서 멀어진다.
하고 싶어도 능력이 부치니 기대난망이란 이야기다.

그리고 디지털시대 도래로 정보가 넘쳐흐르다 보니
애들이 어른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 있다.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서점엘 갔다.
읽고 싶은 책을 고르라 하니 '올바른 육아 법'을 집어 든다.
왜 하필이면 너 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육아서적이니? 하고 물으니
아이가 넉살 좋게 대답하더란다.
"모친께서 절 얼마나 잘 키우고 계시는지 알아 보려구요!"

2011.12.19

7. 편리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대학, 병원 등으로 고객 찾아가는 '포터블 IBK'
지난 12 월 5 일 K 대 앞의 한 커피전문점.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 앉은 대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움직이는 은행'이 찾아왔기 때문.
서류가방 크기에 은행 창구 기능을 거의 담은 '포터블(Portable) IBK'가
커피전문점 탁자 위에 놓여졌다.
은행원들이 이 휴대용 이동단말기세트를 이용해
즉석에서 계좌를 개설해주고 카드를 만들어주자 신기해하는 학생들의 신청이
줄을 이었다. 이날 약 3 시간 동안 70 여명의 고객이 '포터블 IBK'를 통해
계좌를 새롭게 개설했다.

기업은행 멀티채널부 관계자는
"과거 현장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면 서류를 받아와서
은행 점포에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포터블 IBK 를 통해 직접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니
사고 위험도 줄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포터블 IBK 는 현장에서 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 각종 조회 및 신고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노트북을 비롯해 스캐너, 프린터, 카드 즉발기 등
관련 장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는 것.
기업은행은 지난 8 월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포터블 IBK 1 대를 시범운영 중이다. 멀티채널부 관계자는 "2012 년에는
약 20 대의 포터블 IBK 를 통해 전국지역본부에서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얼핏 들어보면, 참 편리할 것 같다.

하지만 떠돌이 철가방을 푼돈 아닌 거액 소지 갑부가 신뢰하겠는가?
신뢰 한다해도 안전성에 대한 보장은 없다.
가방만 탈취된다면야 나름 대책이 있겠지만,
가방과 조작자가 통째로 범죄조직에 탈취된다면?
사고가 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거래편의 제공이라는 목적은 한계가 있다.

공공의 장소가 아니면 위험하다는 말이다.
큰 돈을 휴대용 가방에 넣고 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
편리성 대비 안전성과 수익성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나름 충분하지 싶다.

2011.12.19

8. 스팩이 밥 멕여 주지는 않는다.

S 대 출신이 입사 후 받는 충격으로,

① 업무에 학점이 매겨지지 않는다.
② 보스가 명문대 박사가 아닌데도 자기를 가르친다.
③ 거래처 담당자에게 학벌을 내세우는 게 소용이 없다.
④ 월급이 과외 아르바이트 때보다 적다.
⑤ 명문대 출신이 아닌 뛰어난 동료가 존재한다. 는 것 등이
트튀터에 회자되고 있다는 데
이 말이 비즈니스계에서 공인되는 사실일까?

28 년간 기업에서 녹을 먹으며 내가 겪은 바로도 이건 사실이다.
아니 훌륭한 스펙이 오히려 출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사람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자세를 낮추는 법!
제 잘났다 시건방이 들면
꼴에 기고만장하여 노력도 않고 남을 무시하며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미운털이 박히게 된다.

고작 대학 4 년동안 배운 알량한 보따리를 가지고
20 ,30 년간을 두루 섭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한 두해는 별것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수십년이 누적되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Gap 이 생긴다.

타고난 Spec 이 볼 품 없어 한없이 몸을 낮춘 사람은
인품과 노력을 인정받아 귀하게 되는 반면,

잘난 체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닌 사람은 오래지 않아 부러지고 만다.
알량한 자존심의 시녀가 되어 고립무원 상태가 된다.

다만 소수
진짜 똑똑한 사람은
Spec 에 인격까지 갖춰 남들보다 갑절은 빠르게 출세를 하기도 한다.
이것은 불과 5% 정도의 예외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스스로 자멸한다.
Spec 자체에 패망의 씨앗을 잉태한 때문이다.

2011.12.22

9. 알기 쉬운 '머피의 법칙 (Murphy's Law)'

2011.12.26

10. 정동영스럽다.

누군가 당신에게 "정동영스럽다"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요 며칠 전 이었습니다.
근무중인 포항테크노밸리의 본부장들이 토론을 합니다.
경영, 개발, 재무(CFO) 담당 본부장 3 명이서 말입니다.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의안이어서 팔장을 끼고 관망을 합니다.

애시당초 셋이 그러자고 했던 건이나,
저간의 사정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시 소속 경영본부장이 의견을 타진합니다.

그러자 당초 의견대로 되돌리지 못할 만큼 추진해왔던
포스코건설 출신 개발본부장이 화가 나서 한방 내지릅니다.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정동영같이 말야!"

그러자 분위기가 싸늘히 식어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정동영이라니?"

이 말 한 마디로 그날 토론은 완전히 물건너 가 버렸다.

여기가 경상도이긴 하지만
'정동영' 이란 이 말 한마디가 그토록 엄청날 줄은 몰랐다.

정치 한다고 여의도에 나가계신 분들!
처신들 잘 해야겠습니다?
역사의 손가락질 받지 않으시려면요!

2011.12.27

11.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오래 고이면 썩는다.

SD 의 보좌관 박배수(46.구속)씨가
이국철 SLS 회장측으로부터 받은 돈 이외에도
조경업자들로부터 3 억여원을 더 받는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의 총액이 10 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당초 SD 본인은 물론 측근들조차도
박 보좌관이 "1 억원 외에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 고 한 말을 철썩 같이 믿었단다.
하지만 결과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 이 되고 말았다.

박보좌관은 원래 집안도 부유하고 출신 성분이 좋은 양반댁 자제여서
절대로 그런 허튼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들 했다.
하지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도 못되는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했듯이
사람이란 알 수가 없다.

더구나 오랫동안 주변만 맴돈 사람은 더 더욱 그러하다.
간뎅이가 커져간다.
주인이 하는 일을 우습게 생각한다.
마침내는 시다발이 주제에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
나폴레옹도 그의 머슴에게는 영웅이 될 수 없다는 속담이 딱 맞다.

오랫동안 흐르지 아니하고 고인 물은 썩기 쉽다.
아무리 친하고 믿는 사이라도
가끔은 위치를 바꾸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내보내고 물갈이를 해야 한다.
편안한 가운데 안주하게 되면 사고가 터진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적절한 Tension 을 유지해야 한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2011.12.28

12. 레알 장미단추

요즘 신세대 아이들의 언어다.

레알 장미단추!
Real 長美短醜!
진짜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완전 꽝이야!

그렇다.
먼 발치에서 볼 땐 무지 무쟈게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서 보면 흠 투성이다.

자고로 까불지 말고 평생 자기수행에 힘쓰라는 경고이다.

2011.12.29

13. 2012 임진년 새해를 열며!

내년은 임진년, 검은 용의 해라고 한다.
검은 색은 북쪽을 주재하는 현무의 자리로
위엄은 있으나 두려운 그 무엇을 상징한다.
역사적으로도 임진왜란이 있었던 카오스의 시기였다.

내년에도 우리나라는 쉽지 않은 한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 사후 불안한 남북정세
서방 주요국의 재정적자와 더불어 시작된 Global Economic Crisis
4 월 총선과 11 월 대선
자살, 시위, 각계 각층의 갈등과 대립 등 사회전반의 혼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들 자신부터 각오를 단단히 해 두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내년의 화두를 이렇게 꺼내들까 한다.

세상만사 唯心所作이니
愚公移山하고
盡人事待天命하라!

쓰러져 가는 담장 밑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깔려 죽는 것은 진인사가 아니다.
쓰러져 가는 담장을 일으켜 세우고
그 아래서 세상을 도모해야 진인사한 것이고
비로소 대천명 할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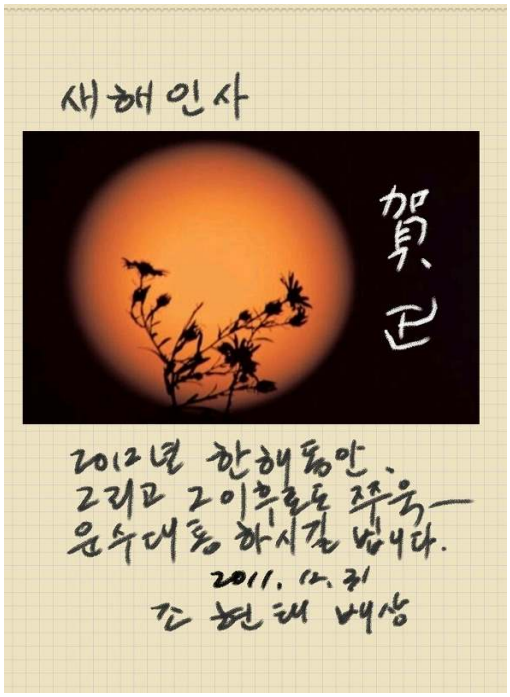
꿈을 꾸는 자에게는 미래가 있고
이를 실천하는 자에게 그 비밀의 문은 반드시 열린다.
이것이 바로 'the Secret' 이다!

한 줌의 짠 소금처럼
세상 일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스스로 넓은 호수가 되어 이를 품어 안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단지 넘어야 할 하나의 고개에 불과하리라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장애물도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타고 넘으면 된다.

14 시간이나 걸리는 기나 긴 뉴욕으로의 여정도
마음이 통하는 누군가와 함께 가면 잠간이다.
우선 즐겨라! 성공이냐 실패냐는 나중이다.
대상이 일이든 공부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공이산하고 진인사대천명하는 길이다.
누가시켜, 마지 못해 억지로 하는 일은
소태보다도 더 쓰고, 죽음처럼 어둡다.



2011.12.30

14. 유연성의 문제

강한 것이 항상 최고는 아니다.
밤새 소복소복 내린 눈에 커다란 나무가지가 동강나버렸다.
혀는 가장 부드러운 부위이지만
한번 휘두르면 여럿이 난자당한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골프를 잘 치려면 팔에 힘을 빼야한다.

세수를 하다가 손가락에 콧구멍을 찔린 경험이 있는가?
나이 오십이 넘으니 옛날과 달리
콧구멍이 손가락한테 자주 테러를 당한다.

아침에 샤워를 하다가 우연히 그 이유를 찾았다.
손가락에 잔뜩 힘을주고 얼굴을 문지르니
콧구멍에 검지가 낑긴다.
얼굴을 세게 문지르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하니
요즘들어 부쩍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다.

손가락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문지르니
콧구멍에 일부러 손가락을 디밀라 해도 안 드간다.
덴장!
이렇게 간단한 이치가...

외유내강, 도광양회, 유약겸하(柔弱謙下) 가 답이다.
노자의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와도 또한 같다.

2011.12.31

15. 폭력보다 무서운 것

폭력은 피하면 살 수 있다.
하지만 폭력을 행사고도 폭력이라는 사실조차 못 느끼는 사회,
폭력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뻔뻔한 얼굴로 들이대는 사회,
정의는 온데 간데 없고 힘과 돈만이 활개치는 사회,
다시 말해서 수치지심이 통하지 않는 사회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노블리스오블리제는 커녕, 돈 줄테니 맞으라는 사회!
돈도 없는 것이 왜사냐고 이죽거리는 사회!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우리 가까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우릴 떨게 하고 있다.

가진 자만 살고 없는 자가 죽어야 하는 사회가 온다면?
그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가 없다.
부자는 많지 않다.
지배층 또한 많지 않다.
소수 가진 자들이 떵떵거리던 시대는 갔다.
바닥지향형 보편적 가치와 단순무식이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
어려운 말로 하면 'Long-tail' 이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는 말이다.
SNS 소통을 통하여 약자들끼리 뭉치고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들의 공격대상은 오직 하나!
잘난 자들과 가진 자 그리고 지배계급이다.

상상해 보라!
먹을 것이 없어 혈안이 되어 있는 굶주린 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 홀로 로맨스를, 파라다이스를 즐길 수 있겠는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는 문다.
고양이가 뭐 대수인가?
참새도 죽을 땐 짹하고 죽는다!

이것은
돌아서서 조금만 생각해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1 차원의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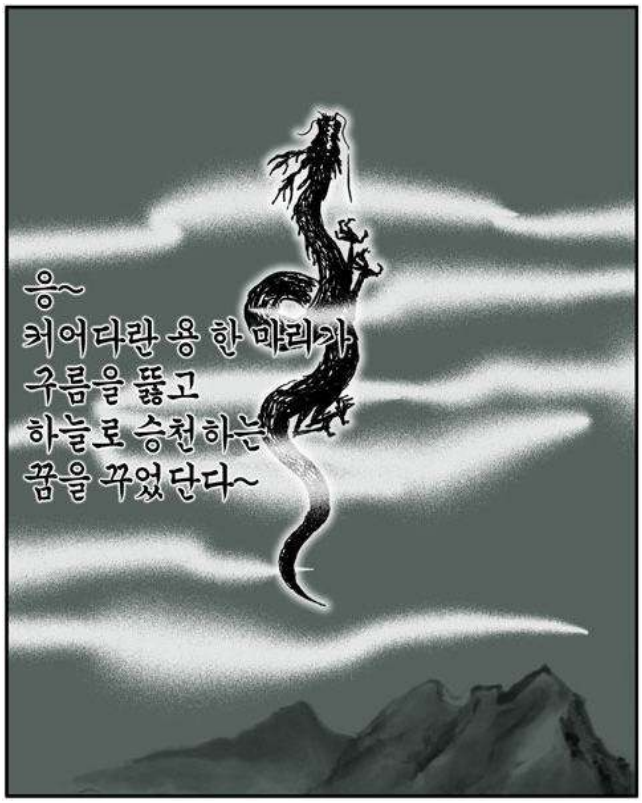
2012. 1. 2

16. 용의 해에 다시 생각해 보는 운명론

인간에게 아무리 좋다고 하는 용꿈일지라도
용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그네들의 꿈일 뿐입니다.

이처럼 세상일이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나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나 충격,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원리'입니다.



주역의 해석도 이와 유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좋은 점괘가 나왔다 하더라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龍이 하늘로 오르는 운세,
즉 乾爲天에 해당하는 최고의 괘라 할지라도
그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합격이나 승진을 바라는 학생이나 직장인에겐 하늘이 최상의 선물이 되겠지만
올라가봤자 죽음 뿐인 노인에게는 '최악의 종착역'에 해당되며,
장사를 하는 상인에게는 '용용 죽겠지? 텅빈 하늘(空虛)' 이라는 의미밖에
더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결국 '모든 것은 오로지 내 맘 먹기에 달렸습니다.
一切唯心造

2012. 1. 2

17. 기도는 내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평화방송 모신부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데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는 감사기도를 해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란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신도가 할 일이지
내 욕심을 하나님께 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 개개인의 욕심을 다 들어 줄만큼 한가로운 분이 아니란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 보다는
연옥에서 고통받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기도를 해야 한단다.

요즘의 세 불리기에 급급한 사이비 종교인들이
새겨 들었으면 하는 대목이다.

2012. 1. 2

18. 나사가 풀릴대로 풀린 대한민국호

지하철도 역주행,
KTX 도 역주행,
사람도 역주행!

무슨 연유인지
국민들의 정서가 점점 메말라 가기만 한다.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다.

어제 저녁 퇴근길,
109 번 시내버스가 세화고등학교 앞에서 턴하여 나오던 중
양옆 주차도 모자라 3 중 주차를 한 봉고차에 버스기사가 뭐라고 하자,
외려 예비군룩 봉고차주가 시건방을 떨며 버럭한다.
"바빠서 잠간 서서 물건 던져주고 가는거야, 그냥 쳐 가소!"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는 어데 가고 28 만 난무한다.

시내버스가, 없는 틈을 간신히 비집고 빠져나가
좌회전을 위하여 잠시 정차해 있는데
어느 틈엔가 봉고차가 따라와
정지선 앞에 선 버스 옆에 급정거한다.
끼이익~ 덜컹!
제 성질을 못이긴 봉고차주가 소리없는 아우성을 친다.
지가 무슨 독립군 깃발인양...

불현듯 집 생각이 난다.
애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누가 시빌 걸더라도 절대로 대꾸하지 말고 모른체 그냥 지나가렴!!"

2012. 1. 3

19. 어허 다르고, 에헤 다른 소리

꼬르륵, 가난함과 불쌍함에 짠한 연민이 밀려옵니다.
후루룩, 풍요와 만족의 미소가 흐릅니다.
꺄르륵, 행복한 아가의 얼굴이 오버랩 됩니다.

2012. 1. 3

20. 불협화음

도미솔 으뜸화음 속의 딸림 시
이빨 사이의 고추가루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떡 치장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칭 '불협화음' 이라고 한다.

최근 모 드라마에 출연 중인 금수미를 두고 나이든
연령층에서 말들이 많다.

드라마의 의도인지, 금수미 개인의 생각인지는 알수 없으나
나이가 들었으면 어른스러야지!
보톡스를 빵빵하게 넣어 젊어 보이기 보다는 부어 보이고
얼굴의 전체적인 균형이나 수수한 아름다움은 실종되어
한숨이 절로 나오게 한다.

조화와 균형, 절제된 아름다움
자연스런 어울림
완벽하다기 보다는 뭔가 아쉬운 구석이 남아 인간적인,
그리하여 누구에게나 친근히 다가오는 그런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이다.
어린 아이가 지나치게 어른스럽다든지
곱게 늙어야할 노인네가 너무 화려한 치장이나 화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내면의 깊은 아름다움을 훼손한다.

세월은 나무에게 조차도 초라한 낙엽의 운명을 주었다.
낙엽은 그 운명을 결코 거스르지 않는다.
흙묻은 들판을 아무렇게나 뒹군다.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낙엽이 추하다거나 불쌍하다고 하지는 않는다.

주변과 동조하고
세월의 흐름에 공명하는 것은
인위나 가공이 아닌 내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는 것이며
인간능력의 한계와 겸손을 배우는 것이다.
부끄러워 할 얼룩이 아니라
당당히 자랑해 보일만한 영광의 흔적인 것이다.

늙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집이자 반항이요, 부질없는 욕심인것이다.
청춘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게 되면 정작 죽어야 할 때
맘 편히 죽지 못하고 허공을 맴도는 불쌍한 영혼이 될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12. 1. 8

21. 모르쇠 증후군

"입만 꼭 다물고 있어!"
"마님, 그러면 떡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둘 다 나온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모르쇠 천국이 되었다.
일단은 오리발을 내밀고 본다는 뜻이다.
증거를 들이대도 모르쇠다.

증거 자체가 조작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다.

모르쇠의 비극은
옛날 옛날 옛적에 피가 뜨거운 어느 안방 마님이
영감 몰래 힘 좋은 마당쇠를 이부자리 속으로 끌어 들인 뒤
쌀밥 한 그릇에 그의 영혼을 빼앗고 '모르쇠' 로 개명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아니, 둘만이 아는 모르스 부호(Morse Code)로 통정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다가 '한보 정태수' 에 이르러 모르쇠의 전성기를 맞게 되고
이제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아무 생각없이 써먹는 전천후 오리발 대용품이 되어버렸다.

"나이가 60 세 이시던가요?"
"모르겠소! 내가 출생신고를 안 해서리..."
"떡값 돌리셨수?"
"모르겠소! 내가 안 돌려놔서..."

당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겠지!
하지만 옛말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는 말도 있다.
그게 아니라고?
그렇더라도 적어도 너 아니면 네 양심이 보고 있다.

2012. 1. 9

22. 정글의 법칙 (Animal Instinct)

Wild World 에선
Animal Instinct 가 우선이다.
약육강식!
힘센 자가 약자를 잡아 먹는 것이 생존의 법칙이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이것이 정글의 법칙인지, 시장원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약육강식이 판을 치고 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피지배자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정보를 틀어 쥔 자가 판을 뒤집고,
목소리 큰 놈이 거드름을 피며,
집단의 이기가 왕따를 조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용케 살아 남는 자들은,
도덕성이고 정체성이고는 안전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폭탄을 던진다.
이러한 Know-how는 와일드월드 세계에서도 학습을 통하여 습득, 강화된다.

물소떼는 사자의 밥이다.
물소떼 중에서도 체력이 약한 놈이나 새끼들이 가장 먼저 타겟이 된다.
하지만 물소들도 학습을 통하여 사자들에게 집단으로 대항하는 법을 터득한다.
무리의 우두머리가 정해지고 무리를 통솔한다.
용감한 우두머리가 사자에게 달려들다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
다른 소떼가 달려들어 우두머리를 구한다.
새끼가 공격을 받으면 어미가 먼저 나서 반격을 가한다.
나머지 소떼도 따라 공격한다.
아무리 용맹한 사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학습된 소떼에게는
섣불리 달려들지 못하고 사냥에서 대부분 실패를 거듭한다.

하지만 조직엔 항상 우두머리의 자리를 노리는 차상위 자가 있다.
우두머리만 없어지게 되면 그 자리는 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놈은 항상 상황을 노린다.
우두머리가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버틸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차상위 물소가 냅다 달려들어 우두머리의 배를 머리로 받아
사자무리에게로 던져 버린다.
이것이 바로 약육강식이요, 정글의 법칙이다.

이제 서서히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고승덕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똑똑한 고승덕이가 정녕 정의가 배고파
자기가 몸담은 조직에 살벌한 칼을 들이 댔겠는가?
자기구역인 서초을에 여의도 단장 박모씨의 먼 친척이자 고향후배인
모 인사가 공천될 위험이 감지되자
독 묻은 칼을 뽑아들었다는 설이 공공연히 떠오르고 있다.

살기위한 권모술수와

자기방어를 위한 물고 늘어지기식 폭로전이 난무하고 있는
대한정글의 지금 이시간 모습이다.

※ 내소냘지오그래픽 TV를 같이 방영한 다른 네티즌의 코멘트 (인증URL)
http://www.frontiertimes.co.kr/toron_view.html?find_how=uid&find_value=yanbu48&l_page=17&no=22537&s=OK01&s_id=197&ss_id=0

2012. 1.10

23. 사업성공의 Key

사업이 성공을 거두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인적 물적 자원도 아니요, 수요와 공급도 아니다.
사업에 발을 담근 이해 당사자 전원이
같은 생각과 비전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에 임하느냐, 아니냐 이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조직은 성공할 수 없다.
고장난명이요, 불협화음필분이다.

처음부터 내키지 않는 사업을
처해진 상황이나 체면, 관계론적 측면에서
억지로 하는 척 하는 것이라면 일찌감치 접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실패의씨앗을 잉태한 출발은
서로가 괴롭고 시간만 낭비할 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질 못한다.
관료주의가 좀 먹는 정부부처와 함께 하는 사업이라면 더 더욱 그러하다.
같은 보직내에서도 이해관계와 복지부동 때문에 협조가 안 된다.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된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내 신상의 안위기 먼저이기 때문이다.

사회와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는 희생과 봉사가 필요하다.
그것이 소금이요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밑거름이 되기를 거부하고 모두가 포식자 되기만을 고집한다면
그 사회는 분열과 다툼과 소란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조직과 사회에는 탁월한 리더가 필요하다.
희생과 봉사를 마다않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똑똑한 사기꾼보다는 묵묵히 일하는 바보가 필요하다.
편안함과 단순함만을 추구하는 애늙은이보다는
육체적 고통도 감수할 줄 아는 마당쇠가 필요하다.

어느 신부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을 구원해달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쁜 분이십니다."
"당신은 별로 하나님과 친하지도 안잖아요?"
"그런 당신의 욕심을 들어 줄 만큼 한가한 분이 아니예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아니라
이타천국, 욕심지옥이다.

2012. 1.13

24. 구중부화(口中孵化)

구중부화란?

입속에 알을 넣고 키우는 것을 구중 부화 또는 입속 부화라고 한다.
구중 부화 과정에 있는 어미 물고기는 그러면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물론 어미 물고기는 알을 입에 품고 있는 동안 전혀 먹이를 먹을 수 없다.
치어들이 헤엄칠 수 있을 때까지 입안에 넣고 키우는 기간이 열흘 정도인데
그 동안 어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새끼가 완전히 부화하여 안전한 상태가 되기까지 어미는 절식 상태로
새끼들을 입속에서 키우는 것이다.
그렇게 자란 새끼들은 바깥 세상에 나온 후에도 위험을 느낄 때면
재빨리 어미의 입 속에 들어가 숨어버린다.

구중부화 하는 어류는 떼를 지어 다니는 줄도화돔과 열동가리돔,
담수어 중에는 열대어 시크리트과 어류의 일부가 여기에 속하며,
우리 나라 도입종 중 역돔이라고도 불리는 틸라피아와 열대 메기류 일부도
여기에 속한다.

수컷이 알을 품던 암컷이 알을 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돔이란 놈은 한겨울 하우스 낚시터에서 잡힐 때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죽기 전에 알이나 낳고 죽자 하고
알을 토하여 입안 가득히 품고 있다고 하니
종족 보존을 위한 모정이 실로 눈물겹다.

장난 삼아 임신을 하고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낙태를 하는
요즈음 젊은이들 하고는 차원이 사뭇 다르다.

2012. 1.14

25.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조강지처

왕은 궁중법도상
중전보다 후궁들을 더 가까이 할 수 밖에 없었을 듯 싶다.
그 이유는 까다롭고 많이 민망한 중전과의 합방 절차 때문인데,
후궁의 경우 그런 복잡한 과정 없이 거사를 치를 수 있어
왕도 사람인지라 편한 후궁들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다.

중전과의 하룻밤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야 했다.
후사를 이어갈 왕손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에
중전과의 합방은 유독 중요시되어 내시들은 물론
조정대신들까지 관여 아닌 관여를 하게 되었다.
중전과의 합방 전에는 후궁들과의 잠자리 또한 자제하라고 한다.

소녀경'의 내용 또한 상당히 원색적이며 선정적인데,
구체적으로 중전과의 잠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일러주었다.
'첫닭이 울기 전에 부인을 애무하고,
부인이 절정의 상태에 오르면 법도에 맞게 합궁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몸을 약간 빼서 방사를 해야 한다.'

물론 여자의 몸상태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을 하고 날짜를 잡는다.
이 때는 '동의보감' '잡병' 편을 참고하는데,
여자의 생리가 황금색일 때가 임신하기 가장 좋은 상태이며,
생리가 끝난 직후부터 엿새 안에 합방 하면 임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미신이 또 끼어 든다.
바로 홀수날 잠자리를 하면 아들, 짝수날 하면 딸이라는 희한한 미신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져 날짜를 잡기는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그런데 막상 합방을 하면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전이 있는 교태전에 가 중전과 합방을 하면
교태전을 바로 둘러싸고 있는 둘레방에서
상궁 3 명이 왕에게 혹시 생길지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대기하고 있었다.
혹시라도 무리한 왕이 쓰러져 복상사로 죽을까봐
닭의 생피를 바로 먹게 하기 위해 닭도 한 마리 준비하고 있었으니
바로 옆방에서 상궁 3 명이나 지켜 보고 있는데다
생닭까지 가끔 꼬꼬 거린다면
운우지정을 즐기기란 결코 쉽지 않았으리라.

그래서 왕들은
절차가 필요없고 눈에 드는 상대를 골라
맘껏 즐길 수 있는 후궁을 선호했는지도 모르겠다.

< 상상으로 그려보는 내시의 구령 >

○ 탈~의 요!
○ 애~무 요!
○ 거총이면?
○ 사. 정.
○ 하산이요!

2012. 1.16

26. 상구와 하구

두 형제가 살았다.
큰 놈이 상구(上口)요, 작은 놈이 하구(下口)였다

上口는 팔자가 좋아
입맛 땡기고 짝 달라붙는 걸 골라 즐길 수 있는 호사를 누린다.
반면에 下口는 냄새 나고 지저분한 걸 도맡아 한다.
세상은 이나 저나 참 불공평하기만 하다.

누가 좋은 걸 마다 하겠는가?
누가 악역 맡는 걸 좋아라 하겠는가?

하지만 하구가 상구보다 나은 게 하나 있었다.
그것은 상구처럼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여 아프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하나만으로 하구는 상구를 넘어선다.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불만 한마디 없는 하구가 상구보다 낫다.

이 세상이 그럴사 해 보여도
밖으로 그냥 드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란 이야기다.

2012. 1.16

27. 포항의 재래시장 '죽도시장'

툭하면 목숨을 내던지는
요즘 젊은이들이 한번 쯤 가 봐야 할 곳이 있다.
그곳은 다름아닌 재래시장이다.
특히 겨울 새벽시장을 둘러 볼 필요가 있다.

재래시장에는 신사복을 쭉 빼 입은 멋쟁이는 없다.
나이 어린 젊은이들도 없다.
늘씬하고 화장빨 잘 받는 유한 마담이나 멋쟁이 아가씨도 없다.
거기엔 등 구부러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뿐이다.

그분들은 잠이 없다.
그분들에겐 추위도 없다.
그 분들에겐 힘든 일도 없다.
그 분들에겐 슬픔이나 좌절도 없다.
그냥 거칠게 하루 하루를 힘들게 살아갈 뿐이다.

그들에게 물어보라!
"왜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시우?"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리라.
"내 안의 DNA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걍 그렇게 살아 갈 뿐이라우!"

사람에겐 주어진 한평생을
아무 말 말고 그렇게 살아가란 미션이 주어졌다.
알려고 하지도 말아라!
불만도 갖지 마라!
단 하루만을 이땅에 머물다 간 하루살이도 있다.
당신들에게 봉사하고도 모자라 가죽과 살을 남겨주고 간 누렁이도 있다.
한 되의 종자를 남기기 위해
한 가마나 되는 몸뚱이를 수억년째 인간에게 바쳐온 쌀도 있다.

아침 출근버스를 타고 죽도시장을 지나오다 보면
늘 짠한 풍경이 다가온다.
대로변에 좌판을 끝도 없이 펼쳐놓고 뭔가를 열심히 팔고 계시는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추운지 곱은 손을 연신 사각 페인트통 화로에 갖다 댄다.
추운 겨울 아침,
뜨뜻한 아랫 목에 몸이나 녹이고 계실 것이지
얼마나 산다고 노구를 이끌고 나와 코딱지만한 좌판을 펴시나?

젊은이들은 어인 영문인지 힘든 일을 당췌 하려들질 않는다.
조금만 힘들고 상처받으면 몸을 던진다.
물에 젖은 한지처럼 나약해진 것이다.
여유와 달관을 모르는 다급한 성정 때문이다.

가끔은 어린 자녀의 손을 이끌고
추운 겨울 새벽 재래시장을 둘러 보라!
어쩌면 거기에 우리가 찾고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2012. 1.17

28. 한 알의 보리가 익어 떡이 될 때까지

1964 년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미 사라지고 없던 책이지만
형님, 누나들이 배우던 교과서(아마도 도덕책이지 싶다) 내용 중에
'한 알의 보리' 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 내용은,

일 하고자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먹자고 달려드는 놈 따로 있다는 내용이다.

닭 한 마리가 어디서 보리 한 알을 물고 왔다.
닭이 물었다.
"누가 이 보리를 땅에 심지요?"
"나는 싫어요!" 개가 고개를 좌로 흔들었다.
"나도 싫어요" 돼지도, 오리도, 염소도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었다.

닭이 말했다.
"그럼, 내가 심지요"
결국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닭이 보리를 심었다.

보리가 싹이 나 자랄 무렵 잡초가 우거졌고,
그 때 잡초를 누가 뽑을 거냐고 묻자 같은 과정이 반복되었다.

보리가 누렇게 익어 수확을 할 때도,
보리를 수확하여 찧을 때도,
찧은 보리를 갈아 떡을 빚을 때도
모두에게 의향을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나는 싫어요!"
"나도 싫어요!"
"Me too!"
"Miss Lee"

하는 수 없이 닭은 스스로
잡초를 뽑고, 보리를 수확하고, 찧고, 갈고, 빚어
마침내 떡을 만들었다.

닭이 물었다.
"누가 이 떡을 먹겠소?"

그러자 뻔뻔하게시리 모두가 다 제가 먹겠다고 했다.
"내가 먹을 개!"
"아니, 내가 먹어야 돼지!'

"아니요, 내가 먹으 오리!"
"무슨 소리? 수염이 석자인 내가 먹는 게 맞소!"

그러자 닭이 화가 나 뾰족한 주둥이로 콕콕 쪼으며
"니그리! 일하지 않은 자 먹지말라 했느니..." 말하곤
그 맛있는 떡을 독식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2012. 1.18

29. 고풀남의 행복론

개콘에 애정남이 있다면
고민이 많은 여러분 곁에는 고풀남이 있어요.
고민을 **풀**어주는 **남**자,
고풀남을 만나볼까요?

행복전도사는 역설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면 되요. 돈버는 게 어렵다구요?
그럼, 부자 아빠를 두세요!

파라독스요, 해학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런 낙천적 사고와 긍정적 포기가
행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살다보면 죽고싶을 만큼 괴롭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때로는
잠시 생각을 멈추고 딴전을 피거나 시선을 돌리면 지나가기도 해요.
도전이나 행복을 위해서라면 피하지 말고 용감히 맞서 싸워야 겠지만
무모한 고통과의 전쟁은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 보세요!
한숨 푹자고 나면 죽음과도 같던 괴로움은 반이나 줄어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들은 겸허히 포기하고 이를 수용케 하시고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은 주저없이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나아가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혜안을 내려 주소서!

그것이 취직이든 승진이든, 아님 선발 컨테스트건
선택받지 못했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결과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당신 무능이 아니잖아요?
결과는 단지 상대의 개성과 사고방식,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행히 양자가 맞아 떨어지면 선택을 받을 것이요,
가치관이 다르면 버림을 받게 될 겁니다.
선택받지 못하면 기다리고 있는 다른 시행착오를 위하여
다시 먼 여행을 떠나야 해요!
인생은 단지 여행을 더 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 죽음과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과감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기꺼이 넘어야 합니다.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피해간다고 해도 거기엔 피해가기 위한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지러운 이 땅에 창조주의 미션을 전달하고
삭막한 대지에 아름다운 노래와 춤사위를 퍼뜨리며
나보다 더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당신의 행복이요,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라면 기꺼이 감수하세요!
그런 다음, 힘들게 싸워 온 당신에게 감사하세요!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 타인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사랑을 모르고서는 남에게 정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살다보면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북극의 만년빙설보다도 시린 아픔이 있습니다.
열사의 호수바닥에 말라 쩔어붙은 소금보다 짠 고통도 있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추락하는 듯한 절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눈 뜨고 보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무력감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탈락으로 스트레스도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건 당신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당신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눈을 돌려 멍청하게 먼 산을 올려다 보세요!
여력이 있다면 가끔은 다른 방도도 찾아 보시구요.
한잔 술도 때로는 도움이 됩니다.
기억을 지우고 한숨 푹 자고 나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기도 하니까요!

치매에 걸린 사람은 끊임없이 거울과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거울 속의 또 다른 나
익숙해야 하는데 전혀 낯익지 않는 나
서먹 서먹한 이방인과 대화를 하며 행복해 합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인식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아무리 짠 소금이라도 호수에 던지면 희석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까?"
"네!"
"차나 한잔 하세요!"

"무척 기쁘시지요?"
"네!"
"차나 한잔 하세요!"

차 한잔 하는 건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마찬가지 입니다.

생각의 끈을 놓으십시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잠시 뒤를 돌아 보세요!
앞만 보고가던 시선을 떼어 좌우를 둘러 보세요!
가물거리는 눈꺼풀을 닫아 조용히 잠속에 내려 놓으세요!
거울속에 비친 낯선 자신과 대화를 해보세요!

포기도 한켠으론 긍정이 됩니다.
멈춤도 때로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잠간동안의 휴식도 다음날은 천리를 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온전한 색도 공도 없습니다.
모두가 어울려 돌고 돕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것이고, 그래서 잠시 쉬어가라는 것이며
우린 일시적으로 버림받을 수도 있고
오늘 성공했다해도 내일 실패할 수 있으며
오르막 길은 반드시 내리막 길을 예정하는 것이며
새옹지마와 같은 사자성어도 생긴 것입니다.

화살도 겉보기엔 똑바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물고기가 유영하는 것과 같이 비틀거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2012. 1.21

30. 인생 총량불변의 법칙

그것이
시간이든, 질량이든, 행복이든 간에
총량불변의 법칙은 언제나 적용되고 있다.

지금 좋으면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확율이 높다.
그래서 새옹지마요, 전화위복이란 말이 생겨났다.

장기도 마찬가지여서
한 쪽의 장기가 너무 강해지면
다른 쪽 어느 장기인가는 반드시 약해진다.

행복한 만큼
불행도 많이 찾아 든다.
절이나 교회 주변에는 귀신도 그만큼 많이 끓는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은 만큼 산도 높다.

차디찬 겨울을 참고 견디어 낸 초목만이
알찬 과일의 풍요를 맛볼 수 있다.
태양이 강할수록 그림자 또한 짙은 법이다.

2012. 1.21

31. 맹사성의 일화

'고개를 숙이면 부딪칠 일이 없게 됩니다!'

맹사성은 열아홉에 장원급제하고
스물에 군수에 임명될 만큼 학식이 뛰어나고 똑똑했다.

그런 그가 한 수 배우고자 고을의 덕망 높은 고승을 찾아갔다.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착한 일만 골라서 하세요"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 아닙니까?"
맹사성이 거만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고승이 잡으며,
힘들여 멀리까지 왔으니 그냥 차나 한잔 하고 가란다.

맹사성이 마지 못해 다시 앉으니 스님이 차를 따르기 시작한다.
그런데 찻잔에 차가 가득 넘쳐흐르는 데도 계속해서 붓는다.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이요?"
맹사성이 화를 내자 스님이 말한다.
"맹공께서는 이 찻잔처럼 지식이 마냥 넘쳐흐르기만 합니다!"
(아는 것이 많아도 실천을 아니하면 공염불과 다름없지요!)

그러자 맹사성이 크게 깨닫고 엎드려 절하니
스님이 덧붙여 이렇게 말해주었다 한다.
"무릇 고개를 숙이면 부딪칠 일이 없게 됩니다!"
(항상 자신을 낮춰 겸손하면 다툴 일이 없다)

이 일화 뒤에는 다른 교훈도 숨어 있는데 그것은,
착한 일을 하라는 말은 삼척동자도 훤히 아는 일이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늙어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잘 안되니
오직 아는 만큼 실천에 힘쓰라는 조언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보다는 먼저 행동 하세요!"
"차나 한 잔 하고 가시지요?"
"고개를 숙이면 부딪칠 일이 없게 됩니다"

2012. 1.26

32. 난세일수록 정도가 방법이다.

세상을 사는 방법에는 꼼수란 것이 있다.
정도가 아닌 자기합리화의 법칙이 그것이다.
Sour Grape Mechanism 이 그것이다.
남의 등을 밟고 일어서는 태도도 이에 속한다.
대중의 인기를 등에 업고 설치는 행위 또한 다를 것이 없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했다.
동족방뇨라 했다.

그러나 진실은 시간이 흘러야 그 모습을 드러낸다.
결국 정도만이 정도로 인정 받는다.
정도는 다소 괴롭다.
정도는 느리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진가를 인정받는 것이 정도이다.

아프지만 종기는 크기 전에 싹부터 도려내야 한다.
그냥 두면 우선은 좋겠지만
결국은 목숨까지를 재물로 바쳐야 할지도 모른다.
녹은 쇠부치 그 자체에서 생겨나지만
종국에는 그 몸을 갉아 먹는다.

세상이 어지러우면,
개나 새나 다 설쳐대고 마가 낀다 했다.
사이비들이 날뛰는 것이다.
젊잖은 이도 예비군복을 입히면 개 망나니가 되는 것과 같이
멀쩡하던 사람들도 돌파리 춤에 취하여
덩달아 날뛰게 된다.

이런 현상이 극에 달하니 그해가 바로 임진년이다.
임진이니, 임을 배신한 꼴이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카오스는 새로운 질서를 위한 진통일 뿐이다.
누군가 영웅이 나와 다시 세상을 평정하리라!

그 주인공은 이순신도 아니요,

정도령도 아닌,
시대가 요구하는 정도다.

2012. 1.30

33. 대포이사

세상에는 '무대뽀' 라는 게 있다.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대뽀(포)는 뻥이 쎄다는 말을 통칭한다.
뻥이 센 사람들이 둘러앉아 쌀뜨물 같은 걸 먹는 집을 대포집이라고 한다.
족보 없는 차는 대포차라고 하며,
사기를 칠 목적으로 명의를 훔쳐 모은 통장을 대포통장,
흔적을 지우기 위해 주워모은 떠돌이 전화를 대포폰이라고 한다.

이런 논리로
회사를 잘 이끄는 CEO 는 대표이사라 부르지만
근본도 없고, 리더십도 없는 CEO 는 대포이사라 한다.

세상에는 돈만 축내는 대포이사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조직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비전을 공유하며 애로를 타개하기는 커녕
한 두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주상절리' 를 '주상전립선' 이라 부르고
턴키도 모르고, 국제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도 모르는
포테밸 AMC 대포이사를 포함해서 말이다.

2012. 1.30

34. 혓바닥을 다스리는 태산대왕(좌마지옥 CEO)

시왕(十王)이란,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僞經), 시왕경에 나오는 시방(10방위) 제왕으로
① 진광왕(秦廣王:本地 ·不動明王), ② 초강왕(初江王:釋迦佛), ③ 송제왕(宋帝王:文殊菩薩),
④ 오관왕(五官王:普賢菩薩), ⑤ 염마왕(閻魔王:地藏菩薩), ⑥ 변성왕(變成王:彌勒菩薩),

⑦ 태산왕(泰山王:藥師如來), ⑧ 평등왕(平等王:觀世音菩薩), ⑨ 도시왕(都市王:大勢至菩薩),
⑩ 전륜왕(轉輪王:阿彌陀佛) 등을 일컫는다.

시왕경은 사이비 경전이지만,
세속적인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요소가 짙기 때문에
선찰(禪刹)에서도 시왕을 모시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사찰에서는 보통 명부전 또는 지장전에 그 조상(彫像)을 모시는 일이 많다.
또 욕계(欲界)의 6천(六天)과 4선천(四禪天)의 왕들을 일컫기도 한다.

사람이 죽으면 그 날로부터 49일 되는 날까지 7일째마다 차례로 7번 시왕 앞에 나아가
생전에 지은 죄업(罪業)의 경중과 선행 ·악행을 심판 받는다고 한다.
불가에서 49재(四十九齋)를 지내는 까닭도 여기서 연유한다.

그 중 인간세계의 혀를 다스리는 태산대왕 (泰山大王) 의
인생살이 평가지문과 결과처리는
다음과 같다 한다.

말을 함부로 하는 요즈음의 일부 정치인, 언론인, 네티즌 들이
진지하게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본성은 다 착하니 욕설하지 말라!
인욕하지 않으면 촤마지옥에 간다!

욕설을 퍼부어 상대방을 당혹하게 하거나 인격을 무시하고
독설을 퍼부어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가?

하는 일에 독을 품고 주술을 외우듯 욕설을 퍼부어 스스로 불안을 당하고
울분하게 하여 실패하게 하였는가?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하고 자기 기분대로 성질을 부리거나 폭언을 퍼부어
상대방이나 주의를 불안하고 불미하게 만들었는가?

악한 말투나 하는 일로 욕설을 깎아 내리거나 짓발고 비난하여 손해를 입히고
그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였는가?

입만 열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질투하여 험담만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심리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손상을 미쳤는가?
그리하여 사회가 불안하고 불순하여 서로 신경질적이고
인격의 도야가 이뤄지지 못하게 하였는가?

참고 견디어 자신의 곤욕을 스스로 이김으로써 타인의 분위기를 흐리거나
비위를 건드리지 않아 평온을 유지했는가?

인욕을 항상 신조로 삼아서 모든 잘못을 스스로 해결하고
남에게 떠맡기거나 책임을 전가하여 고통을 주거나 난폭하지 않게 견디어 냈는가?

만약 악설을 퍼붓거나 불만만 늘어놓거나 인욕하지 못하면
죽어 뼈를 가는 촤마지옥에 갈 것이다.

2012. 1.30

35. 모든 걸 내려 놓으니 죽음도 물러나더라

조바심치면 죽음이 든다.
하지만 요동치는 마음을 가라 앉히고 본래의 진면목을 찾으면
죽음은 물러나고 무한한 즐거움이 다가온다.
이를 해탈이라고 한다.

해탈 속에는 삶도 없지만
죽음 또한 없다.

조바심 치는 것은 스트레스다.
태풍의 눈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나우리 만큼 흔들리지만
막상 태풍의 눈에 들면 고요해진다.
죽음의 문턱은 두렵다.
정작 죽음 그 자체는 무의미하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아무런 차이가 없다.
무대가 바뀌는 것을 제외하고는...

****
최민식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최민식은 최근 진행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이하 '힐링캠프')

녹화에서 "난 벌써 죽었어야 했던 사람"이라며
생사의 고비를 넘나든 사연을 방송최초 공개했다.

이날 녹화에서 최민식은 "초등학교 3 학년 때
폐결핵 때문에 병원으로부터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죽음을 무릅쓰고 병원대신 산으로 들어가
한달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최민식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힘겨운 싸움을 했던
과정들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2. 1.30 마이데일리 = 최두선기자)

2012. 1.30

36. 평화방송 황창연신부에게 듣는다. (17 번 감사기도론 주창자)

오늘 이 시간 2012. 1.30 오후 8 시
황창연 페네딕토 신부님 강의를 듣다.
아릿다운 아가씨를 안고 노는 것보다,
금준미주에 흠뻑 취할 때보다
이 시간이 더 재미있고 쏙 빠져드는 건 왜일까?

그 이유는
종교도 아니요,
숭고한 정신적 지도자이기 때문만도 아니요,
친근감이 있기 때문만도 아니다.

그냥 진솔하고,
우리네 무지랭이들의 평범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머리를 써서 쉽게 사는 것도 사는것이요,
몸으로 때우는 우직한 삶도 소중한 삶이라고 강조한다.

그렇게 강조하는 그의 열정 속에서
난 또 한개의 행복을 줍는다.

미리내, 새남터!
그곳이 그의 생활터전인 듯 하다.

2012. 1.30

37. 복부 마사지만 열심히 한다고 살이 빠질까?

복부 마사지를 열심히 하면 뱃살이 빠질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No" 다.

뱃살은
복부 피하지방 비만과
내장비만을 동시에 제거해야 하는데
칼로리 소모를 위한 운동요법과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 복부 마사지는
내장비만 제거는 물론 피하지방도 줄이지 못한다.
지방이 주무른다고 없어지겠는가?
녹았다 굳었다 반복이나 할테지...

복부 마사지는 본인의 뱃살을 빼주진 못한다.
다만, 마사지를 해주는 마사지사의 뱃살을 빼는데는 왔다다.

매일 사랑을 속삭이는 편지를 쓰게 되면
여자 친구가 나와 결혼을 하는 대신 우체부 하고 결혼을 하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받아가는 격이다.

2012. 2. 1

38. 뭐든 틈을 주면 파고들려 한다.

발톱을 둥글게 깎으면
보기도 쫗고 이뻐서 자꾸 반달처럼 깎게 되는데
이것이 발톱으로 하여금 살을 파고들게 만드는 빌미가 될 수 있단다.

"뭐든 파고 들 수 있는 틈을 주면 안돼!"
다시말하면 발톱 가장자리를 너무 짧게 깎아
살이 삐져 나오게 되면
결국은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결과를 만들게 된단다.

살이 안쪽으로 오므라들 틈을 주지말고
발톱으로 꽉 버티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2012. 2. 6

39. 한 쪽으로 쏠리는 사회

우리사회는 지금
뚜렷한 각자의 개성이나 주관도 없이
한 쪽으로 한 쪽으로 쏠리고 있는 느낌이다.

트윗에서 누가 뭐 어떻더라 하면 우 하고 따라 욕하고
누가 무슨 패딩점퍼를 입었다 하면 나도 그 점퍼를 입어야 하고
누가 어디서 무슨 성형수술을 했다 하면 그리로 뛰어가고
지애가 골프하면 나도 하고
옆집 새롬이가 남미로 축구유학을 떠나면 나도 떠나야 하고
친구가 어학연수 떠나면
나도 잠깐이라도 해외국물 맛을 봐야하고
기러기 따라 팽귄도 뛰고
누구네 아빠가 루이 14 세 와인을 사오면 나도 외상으로 사재야 하고
누나가 피똥 사면 사도 샤넬을 구입해야 한다.

친구따라 강남 가는 일이 잦아졌다.
그 사이에 빚도 많이 늘었다.
감당불가 직전이다.

어제는 귀가 길에
109 번 시내버스를 타고 집 근처에 이르렀는데
중학생 쯤 되어 보이는 머스마 셋이서 버스를 타더라.
그런데 세 놈이 걸친 패딩점퍼 브랜드가 몽조리 'The North Face' 인 거다.

남들이 하나라도 나와 똑 같으면 안 된다던
개성의 시대는 다 어디 가고,
어이하여 짝퉁과 모방의 시대가 판을 치는가?

오호통재(嗚呼痛哉)라!

2012. 2. 6

40. 4 대강에 물이드니 5 대강이 되었고나!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 매어 못쓴다' 했거늘
대강 대강 공사터니
4 대강 사업이 연일 뭇매를 맞는구나!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강행했으면
잘 하기라도 했어야지
이거야 원,
단기실적주의에
4 대강 보가 시퍼렇게 멍드는구나!

이제 머지않아 이런 신조어가 생겨 나리라.
대강, 대강, 4 대강
얼렁 뚱땅 삽질터니
4 대강에 물이 들어 5 대강이 되었구나!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그리고 두동강!

2012. 2. 6

41. 푸어, 푸어, 마구 푸어!

Poor, Poor, Strongly Poor!
대한민국이 점점
빚쟁이 푸어공화국이 되어 가고 있단다.

허니문 푸어 (결혼하느라 빚지고)
→ 하우스 푸어 (집 사느라 빚지고)
→ 에듀 푸어 (가르치느라 빚지고)
→ 실버 푸어 (늙어 땡전 한 푼 없는 거러지 신세)

매일 그렇게 푸고 푸고 또 푸더니
어쩌겠는가?
푸어족이 될 수 밖에...

명분이라면 껌뻑 죽는 일본 조차도
돈이없어 이제는
결혼식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추세란다.

현재 결혼하는 부부중 48% 정도가 결혼식 않고 산단다.
그래서 '나시족' 이란 신조어도 생겼다고...

2012. 2. 6

42. 여옥의 '공치사가'

그래,
결론은 바로 그거야!
공치사가 없었으면 변명할 일도 없었어!
그런 걸 왜 사서 고생을 하고 그래?

내 공은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도 모르게 하고
남에 대한 칭찬은 온 조선이 떠들썩 하게 하라는 말도 있다.
설령 진짜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내가 공을 세웠네!'
떠벌리고 다닐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어느 특정 인물이 혼자 공을 세우는 것도 아니 잖는가?

무릇 남을 무차별적으로 독하게 공격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 놓으면
믿음이 가겠는가?

겸손한 사람은 "안했다" 말을 해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평소에 겸손하니 능히 하고도 안했다 감출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독한 놈 되어, 남에게 적이 되지 말라!
남의 허물이 보이면 내 허물도 남에게 보이는 것이
언젠가는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본인이 신과 동격이어서
절대 실수를 할 그럴 일은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래도 좋다.

공은 남에게 돌려라!
대신 무거운 짐은 네가 짊어지라!
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고도 명쾌한 답이다.

여옥은 오늘도 하릴없이
애꿎은 공후를 쥐어 뜯으며 공치사를 읊조린다.
"공은 내가 세웠어! "
"공은 내가 세웠단말이야!"
"니가 세웠다고?"
"아냐, 내가 세웠어!"
"백수광녀, 끝내 물귀신이 되고 말았네!"

2012. 2. 9

43. 富와 人間性 '청개구리의 법칙'

인간 본연의 모습,
즉 인간성은 부와 역의 관계를 갖는다.
인간이 부유해지면 개인주의로 흐르고

전쟁이 나거나 재해가 생겨 단합이 필요하거나
가진 재산이나 먹거리가 부족하여 나눌 필요가 있게되면 집단화하여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의 본성으로 회귀한다.

이 사실은 Global Economic Crisis 를 맞은
미국에서 현실화되고 있단다.

부모 자식간에
주거장소인 주택을 공유하고
3 대가 한 자리에 모여 식사를 같이 하고
희노애락의 감정을 교환한다고 한다.

도저히 혼자서는 안되겠다 싶으면 가족단위로 모이고
이런 현상이 확대되면 사회나 국가조직에 까지 확장된다.

본래, 자립이라는 말은 홀로 선다는 말이다.
자립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역으로 돈이 없게 되면?
함께 모이게 되어 있다. 협력하게 되어 있다.
먹거리를 공동구매하게 된다.
한 집에 모여 사는 게 비용이 적게 든다.
외부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세계는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좋은 것이 있으면 부작용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행운도 따른다 했던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간성 회복조짐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불행중 다행이 아닌가 싶다.

2012. 2.11

44. 가장 잔인한 복수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복수가 뭔 줄 아세요?
그건 당신이 먼저 고개를 숙이는 일이래요.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하는 거래요.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거래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졌으니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복수는 사랑이래요

눈을 부라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 더 큰 보복이래요!
때리는 것 보다
맞는 것이 더 무서운 거래요!

2012. 2.12

45. 비가 오니 날이 많이 포근하지요?

아침 출근시간!
집밖을 나서자 빗방울이 듣는다.
다시 방안으로 돌아와 우산을 챙겨 나갔다.
그냥 있으라는 이슬비인지,
빨리 가라는 가랑비인지,
은근슬쩍 부슬 부슬, 보슬비가 내린다.
내친 김에 빨리 봄이나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포항 장흥중학교 옆 108 번 시내버스 정류장!
도착해보니 20~30 대 초반의 직딩 아가씨 하나와
50~60 대 초반의 아줌마 한 분이 서 계신다.
그런데 아가씨는 우산을 받치고 있고 아줌마는 날비를 그냥 맞고 서 계신다.

"아가씨 같이 좀 씁시다" 하시든지,
"아줌마 같이 쓰시지요"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이도 저도 아니다!

내가 다가가 "잠깐이라도 비를 피하시지요?" 했더니
얼른 내 우산속으로 쏙 들어오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더 웃긴다.
"비가 오니까 날씨가 더 포근하지요?"
"네, 주말까지는 푹하다고 하네요!"
포근하다고 하는 말이 어색하여 푹하다고 바꿔 대답했다.

요는 포근하다느니, 푹하다느니 하는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 곤란에 처해있으면 응당 도와줘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늘
이제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나날이 더 삭막해져 간다.

얼마나 더 살기가 팍팍해지고 주머니가 얇아져야
서로돕고 어울리는 공동사회, 가족중심 사회가 될 것인가?
희비가 엇갈리는 아침이다.

2012. 2.14

46. Broken Spade

무대뽀가 문제였다.
탄력적 대응이 아닌 강한 밀어부침이 문제였다.
유약겸하가 아닌 허장성세가 문제였다.
길 가운데 서있는 전봇대만 뽑을 줄 알았지
가슴 한복판에 박힌 전봇대를 간과한 것이 문제였다.
상생과 양보와 이해가 아닌 끼리끼리의 유유상종이 문제였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한 무사안일이 낳은 비극이었다.
고소영, 강부자, 5 대강이 문제였다.

추세인 디지털을 죽이고
클래식인 아날로그에 집착한 어리석은 착각의 부메랑이었다.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 과정을
두 눈 뻔히 뜨고 보면서도
뒤에 집권할 실세들은 또 다른 실수를 연발할 것이다.
종류는 다르지만 근본은 같은 실수를 말이다.

'Broken Spade'
'Broken Conscience'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풀고 또 풀어야 할 숙명적 매듭이다.

2012. 2.14

47. 그래 난 소독하려고 술마신다.

그래, 난 몸속의 나쁜 것들을 혼내주려고 술을 마신다!
기생충, 박테리아, 바이러스...
뭐 이런 놈들을 죽이려고 죽자 사자 술을 마시잖아?
아마도 난, 죽어도 부패하지는 않을거야!
평소에 꾸준히 알코올 자연 방부처릴 해왔으니까.

농담한다고?
오늘자 신문기사 함 읽어 볼래?

****

초파리는 자기 몸에 기생하는 말벌을 죽여 없애기 위해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만 알코올 중독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라이브사이언스 닷컴이 16일 최신 연구를 인용 보도했다.
(2012.02.17 (금) 11:16 세계일보)

2012. 2.17

48. 스스로를 좀먹는 녹과도 같은 습관

장성고 앞에서 늘 시내버스를 같이 타고
출근을 하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겨울바람에 감은 머리를 말리곤하는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 그지 없습니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 머리를 먼저 감고 밥을 먹으면 될텐데
그것이 안되고 습관으로 굳어졌나 봅니다.
지하철에서 늘 화장하는 여자처럼 말입니다.

법구 비유경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향을 쌌던 종이에선 좋은 향내가 나고
생선을 엮었던 새끼줄에선 역한 비린내가 난다.
이처럼 본래는 깨끗했던 것도 친해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게 된다.

정작 개구리를 죽이는 것은 펄펄 끓는 100℃의 물이 아닙니다.
서서히 데우는 물입니다.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깜짝 놀라 튀어나오게 됩니다.
다리에 화상을 입을지언정 목숨은 위태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데우면
개구리는 기분이 좋아져
자신의 몸이 삶기는 줄도 모른채 서서히 잠들게 됩니다.

이처럼 주변에 맘편히 익숙해져 가는 것이
바로 현실 안주입니다.
습관입니다.
편한 것에 계속 묻어가려 하는 관성입니다.

우리는 한시바삐 이런 악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동족방뇨가 아닌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구태의 허물을 벗고 새로이 거듭나야 합니다.

아침 출근길에
갤럭시노트를 두들기는 여기는 포항입니다.

2012. 2.20

49. 우리 아이 공부 못하는 건 1분 11초 탓!

우리아이 공부 못하는 건 1 분 11 초 탓이다.
1 분 11 초!
초로 환산하면, 60 초 + 11 초 = 71 초다.

수학도 물리도 71 초가 부족하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다.

다른 것 신경 쓰지말고 먼저 71 초에만 신경 써라!

The Base, The fundation
다시 말해서 Fundamental 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2012. 2.22

50. 점은 예언이라기 보다는 선택(Choice)이다.

점이란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를 예측한다기 보다는
현시점에서의 선택에 대한 합리화요, 책임전가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두 개의 선택 조합이 있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일단 망설이게 된다.
잘 못 고르게 되면 후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문책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어진다.
상대가 나 일 수도 있고, 예언가 일 수도 있으며,
전문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다.
대답이 그 무엇이 됐든 우린 그걸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주역이란 바로 이런 선택을 도와주는 철학이다.
예언이 아닌 선택의 기술이다.
하지만 별 묘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손바닥에 침을 탁 뱉고 손가락으로 튀길 수 있는 기술이면 족하다.

고대국가에서는 왕보다도 제사장이 한 계급 위였다.
사건이 발생하면 제사장에게 물어 본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선택의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다.
제사장은 그저 정해주기만 하면 된다.
어차피 너나 나나 다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거론할 일은 없다.
맞으면 다행이고 틀리면 운명 탓이니 뭘 걱정하겠는가?
다시 말해서 공은 돌리고 책임은 스스로 지자는 것이다.
일체유심조니 사실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받는 것이다.

풍수지리니 하는 것도 다 같은 이치이다.
명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공간이 명당이요, 그걸 찾자는 것이다.
이를 '감여' 라고 한단다.
자연에 어울린다는 뜻이다.
바람이 머무는 곳 따로 있고, 새가 깃드는 곳 따로 있듯이
사람, 그 중에서도 너와 나가 사는 곳이
다 달리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바로 풍수지리 이다.
결국 명당은 각자의 위치와 형편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다.
신사복 입고 초가집에 사느냐, 누더기 걸치고 구중궁궐에 사느냐?
판단은 간단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손을 뻗으면 늘 잡하는 곳에 있다.

2012. 2.25

51. 인간 과대포장 '성형'

성형의 지존, 현영은 말한다.
"우리는 단지, 현대의술의 힘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그리곤 이렇게 되 묻는다.
"모두가 다 같이 진화하면 좋지 않아요?"

하지만 난
사마귀유치원장의 경고를 빌어 일침을 가하고 싶다.
"하지만 후대에도 꼭 성형수술 해야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형수술도 좋다.

하지만 그에 앞서 내 안의 DNA 를 업그레이드 하는 일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지 않을까 싶다.

2012. 3. 1

52. 매워도 다시 한번!

한 겹, 한 겹
벗겨도 벗겨도 끝 없이 나오는 사연!
한꺼풀 벗기면 독한 눈물이 난다.

한 겹 벗겨내면
속이 나올라나, 진짜가 나올라나?
벗겨도 벗겨도
그 속은 알 길이 없고

그저 하염없는 눈물을 비오듯 쏟아내는 넌
정녕,
물어도 대답없는 양파?

오늘도 하릴없이
양볼에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먼 데 산을 올려다 본다.

"매워도 다시 한번..."

2012. 3. 2

53. 신뢰냐? 정의냐?

비리를 고발하고 내부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 옳으냐?
신뢰를 지키는 것이 옳은가?

물론 둘 다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무차별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것은
비리라기보다는 계파적 이해관계에 가깝다.
다시 말해서 정체성이나 소속 여하에 따라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한

선택적 변수라는 말이다.

이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것은 애꿋은 신뢰다.
비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때문에 한번 무너진 신뢰는 복구할 방법이 없다.
더구나 국가간 이해가 상반된 경우에는 정의라는 것도
민족주의 또는 애국심 앞에 무참히 깨질 수 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다름아닌 역사요, 힘의 논리다.

그런데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그 도를 넘고 있다.
양심이라는 미명하에
국익에도 아랑곳없이 마구 마구 폭로들을 해대고 있다.
믿음은 없다.
스승과 제자는 물론이요,
부모와 자식간에도 신뢰는 깨졌다.

신뢰가 깨어지면 사람들의 입이 닫힌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살피느라 서로 눈치를 보게 된다.
커뮤니케이션이 실종되고 서로가 반목하며 다투게 된다.
나만 있고 우리는 없게 된다.

사회는 모래성처럼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
미국이 정의를 위해 전쟁을 하는가?
중국이 북한이 이뻐 원조를 하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반성해 보자.
우리는 과연 진정한 정의를 위하여 혀를 나불거리고 있는가?
내 개인의 이익과 신분, 학연, 지연을 위해 까발리고 있지는 않은가?

2012. 3.13

54. 해산에 부쳐!

여성이 임신을 하여 10 달이 되면
해산을 하게 됩니다.
아쉽지만 나도 이곳 포항에 온지 10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달을 끝으로 해산을 하려 합니다.

그것이 해산이 되었든,
하산이 되었든,
흩어지는 해산이 되었든,
아무튼 해산을 할 예정입니다.

난 또 어느 낯선 길에서
어느 날 문득 낯선 모습을 한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누군가 지나간 길을 다시 걷는 것도 좋지만
아무도 가지 않은 새 길을 개척하고
누군가 그 길을 뒤따르게 된다면,

길은 다르지만
그 길 또한 괜찮은 길이 될거란 걸 굳게 믿습니다!

낯익지 않은 남의 나라 화이트 데이이자
모든 게 파이인 파이(π) 데이에
잠시 짚어본 소회였습니다.

2012. 3.14

55. 오늘은 3.14 파이(π) 데이

2012. 3.14 (수)
오늘은
웬수데이(Wednesday) 가 아니라
3.14 파이(π) 데이다!

그래서
지난 2.14 발렌타인데이에 받은 초콜렛 웬수를 갚기 위하여
초코파이 한 통을 사들고 출근했다.
대표 여직원에게 건네주며,
Why Chocopie? 인지와 말도 안되는 메시지를 남겼다.

"요즘 남자들 속이 좁으니 남자 속(r) x 3.14(π) 만큼 큰 아량을 베풀어
하트원주(Heart-type Circumference) 를 만들라!"

오늘 파이데이를 계기로
선남선녀들 이쁜사랑 나누고
못난 인간들 정화 좀 되었으면 싶다.

오늘은 π-Day 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포항시 Shrek 2 분리수거 날이기도 하다

2012. 3.14

56. 공부가뭐이가

난, 공부가 전부인 줄 알았다.
난, 공부가 최고인 줄 알았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곰곰 생각해보니 그건 환상이었다.
그저 이해를 따지는 알음알이에 불과했다.

요령부득이면 공부에 전념할 수 밖에 없다.
대인기피증이 있으면 껍데기 속으로 숨어드는
공부에 목숨 걸 수 밖에 없다.

결국 공부란
소심한 인사들의 쪽팔리지만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이 말이 비록 '사우어그래이프 매캐니즘' 이라 해도 말이다.

공부는 잘 해야 한다.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공부는 사람을 잡을 수 있다.

남을 해치는 공부는 그만 두어야 한다.
대신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의 공부를 하자.
욕설과 험담과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잔 공부는 이제 그만 두자!

2012. 3.22

57. 가슴으로 말하라!

'티벳의 라마교 승려, 아티샤는 이렇게 가르쳤다.
"가슴의 일이거든 비판하지 말라"
가슴이 하는 일은 다 옳다.
가슴이 웃으면 진짜로 웃는 것이다.
가슴이 울면 진짜로 우는 것이다.

머리로는 웃는 체 할 수 있다.
우는 체 할 수도 있다.

머리는 새대가리, 돌대가리에 이어 잔대가리가 있지만
가슴은 새가슴, 냉가슴은 있을지언정
잔가슴은 없다.

※ 아티샤 [982~1054]

'보리도등론(菩提道燈論)'을 역설하며
라마교 재흥운동에 앞장선 인도의 승려이다.
카담파종(宗)을 창설하였다.

동인도 사호르 왕국의 왕자 출신으로서
왕위를 계승하지 않고 출가, 승려가 되었다.
법명(法名)은 디팡카라 슈리지냐나이다.
불교의 현교(顯敎)·밀교(密敎)를 두루 섭렵, 명성이 드높았다.
비구 라마 시라 승원(僧院)의 장로로 있다가
서(西)티베트 코르레왕의 초청으로 1042 년 가리 지방으로 가서
티베트불교, 즉 라마교 쇄신운동에 앞장섰다.

2012. 3.22

58. 까치가 우옵네다.

까치가 우옵네다.
조까치 우옵네다.

까치도 여럿 있습네다.

때까치, 까막까치, 조까치, 놀까치...
그중에 놀까치가 젤 입니다.
구작(鷗鵲)이가 바로 놀까치입니다.
즐기면 안될 일도 술술 풀립니다.
구작이는 늘 즐겁습니다.
구작이는 신나게 노래를 부릅니다.
구작이는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하니 즐거워집니다.

까치가 우옵네다.
엊그제처럼 오늘도 우옵네다.
까치 까치 조까치 우옵네다.

2012. 3.23

59. 어그부츠와 솔트

나는, 요즘 여자들이 왜?
별로 이쁘지도 않은 어그부츠를 그토록 사랑하나 퀘스천마크였는데
오늘에서야 그 이유를 알았다.
'어그부츠가 영의정 신발을 많아 닮았기 때문' 이란다.

그런데 어그부츠도 중국산은 좀 생각해봐야 할 듯...
사용후기에 올라 온 글 중 이런 사연이 있었다.
"시내를 한참 걷다가 족감이 좀 이상해서 내려다보니,
밑창이 달아나고 없었다.
부츠는 기가 살아서 무릅위로 이만큼 올라와 있고..."

무식해도 재치가 있으면
그나마 뭇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경우다.

"배가 영어로 뭔가?"
"쉽"
"그렇지? 그럼 작은 배는?"
"쉽새끼!"
8 년을 사귀다 헤어진 영희를 보내며

오정이가 한마디 했다지?
"영희 똥꼬!"

교수님이 한미관계 교육 중 SALT 가 뭐냐고 물어봤다네?
질문을 받은 여학생,
분명 어딘가에서 보긴 했는데 기억이 안나더래.
그래서 농담비스무리하게 "소금이요.." 이랬더니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거 말고, 대문자에 스타카토 단 S.A.L.T. 말이야"
그러자 여학생이 큰 소리로
"왕 소금 말씀이신가요?"

2012. 3.23

60. 느림의 미학

오늘(2012.4.20) 자 문화일보 타이틀 기사를 보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질 않았다.

강남 40~60 代 유행 '성장 호르몬'... 효과는?
"노화방지 효과" 입소문... 전문가 "효과 장담 못해"

성장호르몬, 성장촉진제
이딴 것들은 후유증이나 이상 유무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다.
성장촉진이란,
정상적인 발육을 넘어, 다시 말해서 도를 넘어
억지로 신체조직을 늘이는 작업을 말한다.
조장(助長)이다.

조장은 허장성세다.
웃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뻔하다. '죽는다' 이다.
언발에 오줌 눈 격이다.

농촌에서 잡초를 제거하기가 힘들어 개발한 농약중의 하나가
2,4-D 라는 제초제인데
이 제초제의 원리도 생장촉진이다.

풀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웃자라게 해서 말려죽이는 것이다.

빨리 빨리 서두르면, 그 만큼 빨리 간다.
살인자 분야요(화가 사람을 죽이고),
백인당중 유태화(백번 참으면 가정에 평화가 깃든다)라!
모름지기 과유불급이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이다.
웃자람을 에둘러 경계하는 말 중엔 '대기만성' 이란 말도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조기퇴직을 많이 당하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조로증후군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느림의 미학,
양보의 이데아,
버림의 철학을 한번쯤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2012. 4.20